

# ‘새만금 특별법’ 오늘부터 정식 시행

투자유치 규제완화·인센티브 부여·사업추진 절차·제도 개선 등 담아

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및 투자 유치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부터 달라지는 새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운영 ▲부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대부분 사업인 새만금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해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에서 10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 기구는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정비해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동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나 새만금 규제 개혁과 같은 정책 조정, 갈등 관리 등의 업무를 일괄처리해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가 삼각협력을 이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새특별법은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규제특례지역 등의 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새특별법에 따르면 국내 외부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 자금 지원과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새특별법 시행은 송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꾸준한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의 공조를 얻고 여·야를 초월한 새만금 개발 열원을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금감원, 온라인 무료 금융상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채·재무관리 등의 무료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11일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초년생,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담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http://www.fss.or.kr))에서 1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보타워에서 직장인을 위한 멤버 콘서트를 개최해 오프라인 금융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국방부가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합의하기로 발표하고 후보지 중 한곳으로 군산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11일 전북도 접경설에서 송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최병관 도민안전실장 등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준수 당부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유행주의로 기준의 4배 가까이 치솟아 보건당국이 손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기준은 1000명당 11.3명으로 지난달 14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보건당국은 개학 등이 맞물린 이달 인플루엔자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과 더불어 생활습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주기자

## 전북도, 1,252억 원 투입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11일 전북도는 폐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 등을 위해 올해 1,252억 원(국비 728, 도비 276, 시·군비 249)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당초(2015년 11월경) 국토교통부가 내세웠으나 국비 68억 원이 추가 증액 확보된 금액으로 특히 도는 올해는 전주 팔복 등 금화천 등 6개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우기철 첨수피해 예방과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활력을 위해 신규사업(전주 팔복동 금화천, 군산 수송동 유회천, 점을 감곡면 석정천, 남원 주천면 송지천, 무주 설천면 원당천, 고창 고창읍 주진천)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계속사업(38지구)에 대해서는 신형 하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 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 대교양학부(토론·면접) 겸임교수
- 한국 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경북 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 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커리어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뿐’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BC 한시다시보기 등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원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 해수부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 6월 개최

11일 전북도는 제2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월드컵 대회를 은파호수공원에서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웨이크보드는 수면과 평행하게 와이어를 설치하여 전기모터를 사용 각종 기술을 선보이는 해양 레저스포츠로, 일명 ‘물 위에서 티는 보드’로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 종목이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새특별법 시행은 송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꾸준한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의 공조를 얻고 여·야를 초월한 새만금 개발 열원을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트스키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수면 위를 나는 워터보드·시언과 카약·모터보트·수상자전거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무료로 체험하게 할 수 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2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케이블 웨이크보드 월드컵 대회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 전북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32명 신청 접수

11일 전북도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내 각 시·군 귀농귀촌팀 담당부서에서 25일까지 청년 창업농 32명에 대한 지원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농산업 창업 끔꾸는 만8세에서 만39세의 도시 청년들이 창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지원하면 3월 중에 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도시청년 32명을 선발하고 농촌에 유치해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영수기자

## 고창읍성 환경부 공모 선정

### 주변지역 도시민들 위한 생태 휴식공간 조성

전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고창읍성(시적 제145호) 주변이 훼손되고 방치된 모습에서 벗어나 도시민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선정한 2016년 자연미당 조성사업에 전북 고창과 충북 충주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1일 고창군 고창읍성 일대(66,611㎡)가 2016년 자연미당 조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다.

자연미당 조성사업은 도시 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습지·자연학습장·관찰로 등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관광의 도심 생태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전북도가 아심차게 추진 중인 전북형 생태관광 육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 4년간

전북도만 유일하게 2번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 대상지 내에 사유지와 분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선정한 2016년 자연미당 조성사업에 전북 고창과 충북 충주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1일 고창군 고창읍성 일대(66,611㎡)가 2016년 자연미당 조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다.

자연미당 조성사업은 도시 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습지·자연학습장·관찰로 등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50억원(국비 15.5억원, 지방비 34.5억원)의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3년에 걸쳐 15.5억원의 국비

를 지원받아 시행된다.

/정영수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